

6·4 지방선거 현장

기초단체장·지방의원

김미화, 동구민 '건강지킴이' 공약 제시

김미화 통합진보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3일 간호사 출신 후보답게 "동구를 건강하게, 민주와 복지를 건강하게"를 슬로건으로 사회 취약계층, 영유아, 노년층의 건강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건강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보육과 교육,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과 구립어린이집 직영,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 등의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형근 "주민과 약속한 7개 공약 지키겠다"

오형근 무소속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3일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동구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과 약속한 7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오 후보는 "주민들이 공약이행 약속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하겠다"면서 "아시아문화전당과 푸른길 무등산으로 이어지는 생태축 개발 등 7대 공약으로 동구의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진선기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안전복구 실현"

진선기 무소속 광주 북구청장 후보는 3일 "주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안전복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는 "특히 안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노인·장애인 생활시설이 의무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안전설비 예산을 확충하고 각종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농업성장 위한 지원 정책 강화"

민형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는 지난 2일 농번기를 맞은 임곡동을 방문, 농업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민 후보는 "도농복합도시인 광산구는 농촌지역의 면적이 전체의 70%로, 농촌은 광산구의 뿌리"라면서 "뿌리가 튼튼해야 어떤 열매도 잘 맺을 수 있는 만큼 도농 문화 교류와 농촌경제 활성화, 농민 생활지원 정책 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근기 "사회적 약자 지원하는 공약 실천"

유근기 새정치민주연합 곡성군수 후보는 3일 "잘사는 곡성을 위해서는 청렴한 인물이 군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면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새롭고 깨끗한 후보를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농업, 관광, 보건, 복지, 교육,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정부와 도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힘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주장했다.



임호경 "화순의 시 승격 반드시 실현"

임호경 무소속 화순군수 후보는 3일 "임호경의 선택을 통해 화순의 시 승격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달라"면서 "화순시 승격을 위해 오직 임호경만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는 2300억원 규모의 국가백신센터 및 관련 기업 유치, 감도리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우철 "현장 군수실 정례화, 화합·소통위 설치"

신우철 새정치민주연합 완도군수 후보는 3일 "지역경제 살리기와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살기 좋은 완도, 화합의 완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또 "그동안 꾸준히 지속된 지역의 분열을 마무리 짓기 위해 현장 군수실을 정례화하고, '화합·소통위원회'를 설치해 화합과 소통을 통한 완도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정책 발표

강진원 새정치민주연합 강진군수 후보는 3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농번기 때마다 여성 농업인들은 일과 육아, 식사 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식사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일손을 크게 줄이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주민간 유대도 강화할 수 있는 마을공동급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철환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 구현"

박철환 새정치민주연합 해남군수 후보는 3일 "요람에서 생의 마지막 무덤까지 책임지는 일류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농어촌 어르신 맞춤형 치료와 재활프로그램 운영, 재활운동, 치매검사, 우울증 검사 등을 포함한 어르신 건강 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영유아와 젊은 부모들을 위한 문화센터 등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양수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공동공간 마련"

김양수 새정치민주연합 장성군수 후보는 3일 "최근 발생한 효사랑요양병원의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전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동생활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어르신들에게 급식과 돌봄 서비스 등을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형식 "군민소득 3만달러 자립도시 만들겠다"

최형식 새정치민주연합 담양군수 후보는 3일 민선 6기 정책비전을 담은 '제2차 뉴-담양 플랜'을 발표하고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로 '군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오는 2018년 담양 지명(地名) 천년을 맞아 ▲군민 소득 3만달러 ▲인구 7만명 ▲관광객 700만명의 자립도시를 건설하는 등 또 다른 천년 담양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남 "풍암저수지 수질 개선 문제 해결"

김영남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 서구 시의원(제3선거구) 후보는 3일 "최근 들어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풍암저수지에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질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풍암저수지의 수질 개선을 목표로 농어촌공사, 서구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현일·박진표 기자 cki@kwangju.co.kr



문순태 칼럼

지난 주말 중학교 동창생 목사 부부가 생오지로 나를 찾아왔다. 까까머리 소년의 기억으로만 존재하다 백발노인이 되어 만났는데도 전혀 서먹서먹하지 않았다.

57년 만에 만난 백종대 목사. 그는 그동안 익산(북문안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다 얼마 전 정년을 한 뒤, 캄보디아 씨엠립에 교회와 학교를 지어주고 선교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나이가 들자 옛 친구들이 만나고 싶었고 동창생 서너 명 중에서 유일하게 내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거였다.

점심을 먹으면서 그동안 살아온 세월과 세상 이야기를 격의 없이 주고받았다. 이야기는 세월호 참사에서 장성요양병원 화재와 6·4 지방선거로 이어지면서 차츰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대뜸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으로 잘 살게는 되었지만 소중한 정신적 가치를 많이 잃어 버려 중병에 걸린 것이라고 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함부로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 캄보디아 이야기를 했다.

충격을 받지 않는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출세하려고 몸부림치고,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 어느 교육자의 말처럼 인성교육이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내일이면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역사는 흐르니까, 신경쓰지 않고 타성에 젖어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문제다.

지난 3일엔 광주 무작사에서 거행된 세월호 49세 추모제에 다녀온 40대 앵그리맘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를 훔쳐간 적을 쳐부순다는 '앵그리버드 게임'에서의 어미새처럼 잔뜩 화가 나 있었다.

중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을 가진 그 엄마는 세월호 사고 이후 가슴속에 촛불을 켜고 살아간다면 "여당 정치인들은 왜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이 하지 않고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지"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싸

응답하라, 대한민국

그의 주도로 씨엠립에 8000만 원을 들여 교회를 짓고 문을 여는 날, 1500명 분의 도시락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때 한 사람도 끼어들기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받아가더라는 것이다.

국민소득 800불 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지만 감사할 줄 알고, 질서를 지키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는 그들이 부러웠다고 했다.

대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렸는가. 김지하 시인의 말대로 아직 이 땅에 재발·국회의원·고급 공무원·장성·장차관 등 5적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판피아·해피아·법피아·정피아·포피아·교피아·세피아 등 수많은 '피아'들의 적폐가 이 나라를 골목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된 것은 친구 백목사의 말처럼 압축성장으로 모두가 물질주의에 매몰된 원인이다.

우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큰 관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중국 수습 대책으로 국가 개조론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 개조 이전에 국민통합이 우선이다.

진보와 보수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프레임으로 어느덧 우리의 삶까지도 지배하게 되었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교육계·시민단체·노동계·학계·예술계까지도 진영을 형성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거기다가 대통령은 한쪽 날개만으로 혼자서 높이 날려고 한다.

국력을 남북대결 국면으로 집중한 채, 군사학적 안보제일주의라는 보수의 날개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비행할 수 없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대립이 치열하면 할수록 국력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가 공유하는 가치를 찾아 상생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보수와 진보의 상생이 시대적 소명인 것이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투표로 응답하는 일이다. 나부터 변화해 세상

이 바뀐다. <소셜가>

이 바뀐다. <소셜가>

NAVER *전국방역* **단비플라워** *을* **저보세로**

단비플라워

죽아화완3단 근조화완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수수료 (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2014고단 1219	유안회사 대상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27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37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45	풍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55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63	유안회사 대상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73	풍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81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84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90	유안회사 대상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99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306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315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322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4년 5월 23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조영호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2014고단 1230	풍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48	주식회사 국보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66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93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309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325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4년 5월 23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권태형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2012고단 1289	강유원	사기미수

위 피고인은 사기미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4년 5월 23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권태형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2014고단 1220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28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38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46	유안회사 남해환전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56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64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74	풍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82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85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91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300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307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316	풍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4고단 1323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4년 5월 26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승휘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2014고단 1229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47	유안회사 삼흥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65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83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92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308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324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4년 5월 27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최현중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2014고단 1222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32	유안회사 삼흥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40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50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58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68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76	유안회사 대상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86	한지회사 운수리용(변경전:한지회사 금남기업)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4년 5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대현